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 일 시 : 2013년 11월 28일(목) 14:00 ~ 17:00

▶ 장 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빌딩 2층 단재홀

▶ 주최 및 주관

공동주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환 영 사 ■ ■ ■

저희 연구원이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특별기획한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귀빈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의 성공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 청소년계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본 세미나를 청소년활동의 총괄·지원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그리고 국가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함께 주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해주시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표를 해주실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단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과 적성·소질을 발견하고 스스로 미래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소년들이 교과서의 세계를 벗어나 실제 세상을 스스로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여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선진국들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단지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추세이며, 자유학기제를 통해 우리도 그와 같은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올해 42개의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2년 간 희망학교 운영단계를 거쳐 2016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교육 실험에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며, 그동안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옳곧게 살려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계와 우리 청소년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세미나에서는 지역사회와 기존 청소년활동 인프라와 자유학기제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목표를 실현하고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원인 청소년들도 함께 초청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청소년의 생각과 시각을 반영한 자유학기제의 추진 방법 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 세 부 일 정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3년 11월 28일(목) 14:00 ~ 17:00
- 장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빌딩 2층 단재홀

### ■ 프로그램

|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                                                                                                                                                |
|---------------------|------------------------------------------------------------------------------------------------------------------------------------------------|
| 13:40~14:00         | 등 록 (사회: 청소년활동진흥원)                                                                                                                             |
| 14:00~14:10         | <b>개회사:</b> 이재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br><b>환영사:</b> 안재현(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br><b>인사말:</b> 윤호식(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
| 14:10~14:50         | <b>발표 1: 자유학기제 추진 현황 및 과제</b><br>최상덕 박사(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소장)<br><b>발표 2: 지역사회 자유학기제 청소년활동 연계협력 방안</b><br>성은모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14:50~15:30         | <b>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자유학기제 제안 분석</b><br>장근영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br><b>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제안과제 발표</b><br>이윤지(부산덕문여자고등학교)<br>이진웅(강원원주공업고등학교)<br>고하림(호서대학교) |
| 15:30~15:40         | 휴 식                                                                                                                                            |
| 15:40~17:00         | <b>종합토론</b><br>정효정(단국대학교 교수)<br>김봉호(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br>류정섭(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br>손재환(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원)                                                |
| 17:00               | 폐 회                                                                                                                                            |



# 목 차

## 발표1

|                        |   |
|------------------------|---|
| 자유학기제 추진 현황 및 과제 ..... | 1 |
|------------------------|---|

- 최 상 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소장)

## 발표2

|                                |    |
|--------------------------------|----|
| 지역사회 자유학기제 청소년활동 연계협력 방안 ..... | 17 |
|--------------------------------|----|

- 성 은 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3

|                                   |    |
|-----------------------------------|----|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자유학기제 제안 분석 ..... | 49 |
|-----------------------------------|----|

- 장 근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4

|                               |    |
|-------------------------------|----|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제안과제 발표 ..... | 57 |
|-------------------------------|----|

- 이 윤 지 (부산덕문여자고등학교)
- 이 진 용 (강원원주공업고등학교)
- 고 하 림 (호서대학교)



## 발표 1



# 자유학기제 추진 현황 및 과제

최 상 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소장)



# 자유학기제 추진 현황 및 과제

## : 협업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 1. 머리말

중학교 학생들 스스로 꿈과 끼를 찾도록 하기 위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첫 학기가 운영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되었다. 연구학교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선생님들에게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수업을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도 행복해지는 모습이 일부 학교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이 11월 21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인 동작중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유학기제를 교육 전반을 변화시키는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교육을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방향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와 사회의 협력을 위한 협업체제의 구축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추진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 2.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정책 방향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정책 방향에 대한 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난 5월 28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알기 쉽게 요약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창의교육을 통한 행복교육 실현’, 즉 ‘학교교육의 정상화 추진’이라고 할 수 있고, 정책 구현 방향은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이며, 구체적 방법이 토론, 실습, 체험학습, 지필고사 폐지, 체험과정과 결과 서술 등이다.

|                       |                                                                                                                                                                        |
|-----------------------|------------------------------------------------------------------------------------------------------------------------------------------------------------------------|
| ‘국민행복’<br>국정 기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의 4대 국정 기초 실현을 위해 14대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li> <li>• 교육정책은 ‘국민행복’ 국정기조 산하</li> </ul>                |
| ‘창의교육’<br>추진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5번째 추진전략</li> <li>• ‘창의교육’ 산하 8개 국정과제 중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관련이 4개</li> <li>• 창의교육을 통한 행복교육 실현</li> </ul>              |
|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br>국정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국정과제의 추진계획인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의 과제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li> <li>• 토론, 실습, 체험 중심, 지필고사 폐지, 체험학습 과정과 결과 서술</li> </ul> |

출처: 2013. 5.28 국무조정실 정책브리핑

[그림 1]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과제로서의 자유학기제

교육부가 5.28일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이하 교육부 계획)은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정책 방안을 보다 구체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는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도 자유학기제의 목적이 공교육 정상화 추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들이 시험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행복한 학교생활, 꿈과 끼 찾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세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행복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셀리그먼(Seligman, M)은 최근 저서인 『플로리시(Flourish)』에서 지속적 행복인 웰빙을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 참여(몰입), 관계, 의미, 성취의 5가지 요소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셀리그먼, 2011). 즉,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를 키워주며, 수업과 생활에 참여적이고 동료 및 선생님과 관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유학기제 추진 방법으로 참여형 수업이나 협력적 관계, 배움의 즐거움 등을 강조하는 것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수업 개선이 보다 널리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셀리그먼에 의하면 행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본인의 대표 강점을 찾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대표 강점은 다양한 강점(미덕) 중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강점이며, 노력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타고난 재능과는 구별된다. 대표 강점을 찾는 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진 여러 검사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체험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셀리그먼이 저서에서 소개하는 여러 검사도구나 이미 학교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홀랜드의 진로적성 검사 등 다양한 검사도구를 활용해 대표 강점 또는 적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여러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표 강점 찾기는 꿈과 끼 찾기와 통한다. 즉 대표 강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꿈과 끼를 새롭게 발견하고 키워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학기 동안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대표 강점을 찾고 키울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긍정적 마음으로 수업과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학교생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성취감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표 강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역량<sup>1)</sup>을 키워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은 학생 자신은 물론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21세기 들어 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요구되는 것은 창조적 아이디어가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국가의 부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

1) 이 글에서는 역량(competence)의 의미를 지식(knowledge), 실행능력(skill), 인성(character)을 포함한 광의의 의미로 사용함.

다음 [그림 2]는 기술의 변화로 인한 직무의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래로 갈수록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이나 분석을 필요로 하는 직무가 크게 증가함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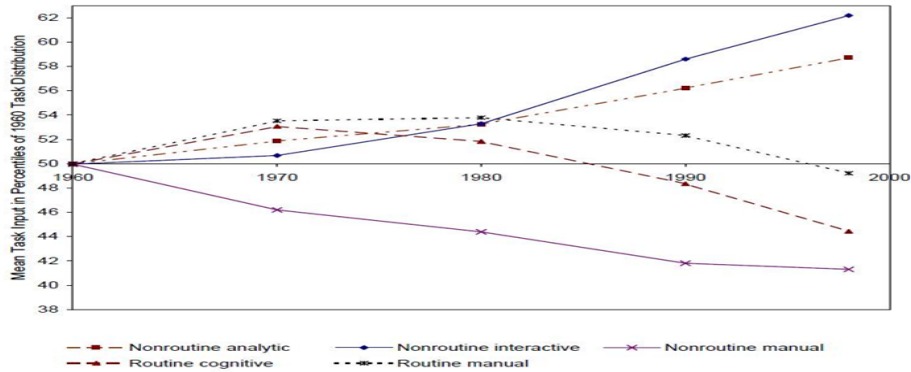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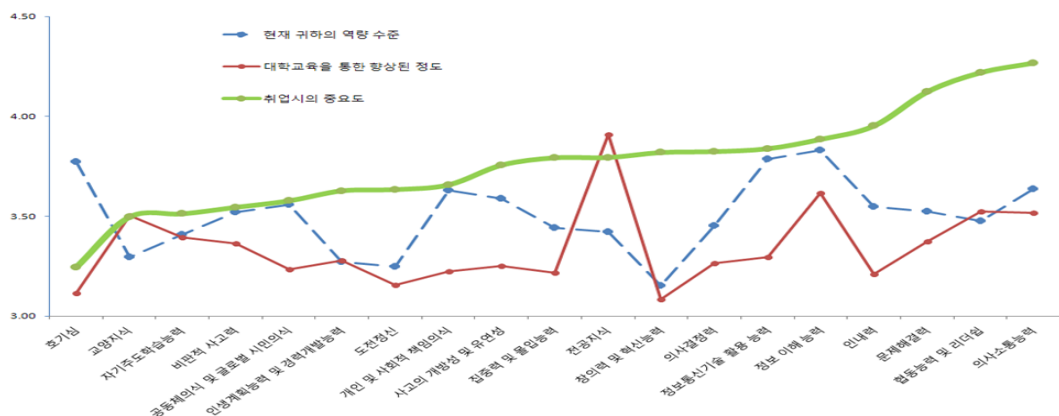
Figure 1. Trends in Routine and Nonroutine Task Input, 1960 to 1998.

출처: Autor et al., 2003; 최상덕 외, 2011 p.32에서 재인용

#### [그림 2] 기술의 변화에 따른 직무의 변화 추세(미국)

특히 과학기술의 변화가 빠를수록 이러한 변화추세가 가속화 될 전망이므로 모방형 경제에서 창조형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최상덕 외, 2011).

다음 [그림 3]은 졸업을 앞둔 4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시에 요구되는 능력에 비추어 현재 본인의 준비 정도, 대학교육을 통해 향상된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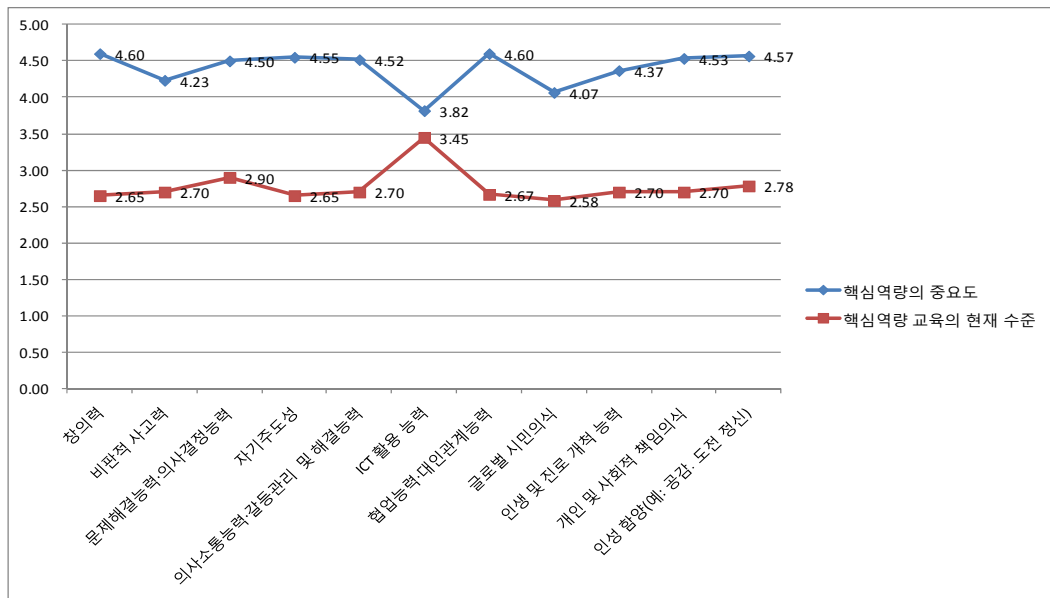


출처: 최상덕 외, 2011. p.168.

#### [그림 3] 대학 4학년의 미래 역량 중요도, 준비도, 향상도

그림에서 보듯이, 대학 4학년생들은 전공지식이나 교양지식은 취업시 요구하는 수준이상으로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에 창의력 및 혁신능력, 협동능력 및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도전정신 등은 대학교육을 통해 향상된 정도나 본인의 준비정도가 취업시 요구되는 수준에 크게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필자가 올해 수행한 연구의 결과에서도 다시금 확인된다. 다음 [그림 4]는 교육, 과학기술, 산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델파이조사에서 도출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각각 그 중요도와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육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출처: 최상덕 외(2013b).

[그림 4] 핵심역량의 중요도와 학교에서의 교육 수준 비교(초·중등교육)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특히 창의력,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인성(공감, 도전정신 등)의 중요도가 높은 반면 학교에서의 교육 정도는 낮아 그 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듯이, 자유학기제의 목적인 행복한 학교생활, 꿈과 끼 찾기,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배양을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수업 개선은 물론 다양한 체험 및 자율활동을 위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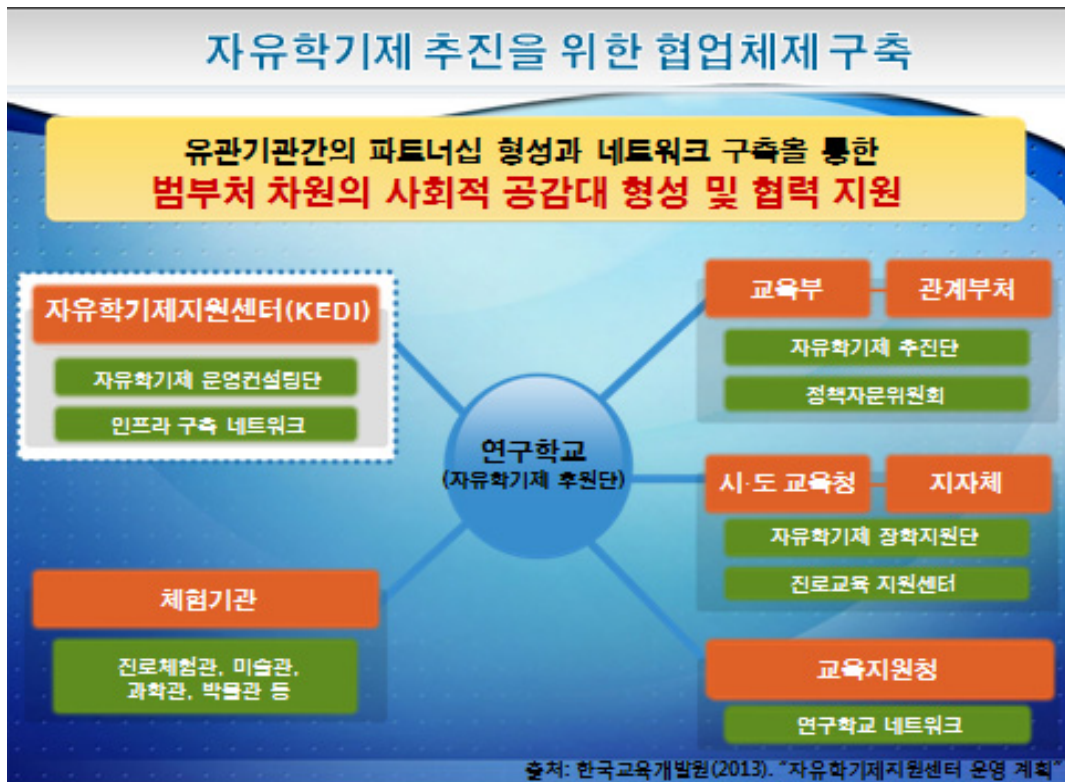
전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요청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업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 3. 자유학기제의 추진 현황: 협업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지난 3월에 42개 연구학교가 선정되고, 4월에 연구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자유학기제지원센터가 지정되면서 자유학기제의 추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차원에서 보더라도 6월 초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발대식이후 42개 연구학교 대상의 권역별 컨설팅, 교육부와 15개 공공기관 참여의 협업체제 구축,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연구학교 교장/교원 연수, 학생선택프로그램 개발, 2차례 박람회 메인 부스 운영, 자유학기제 뉴스레터 및 연구학교 소식지 발간, 자유학기제 포럼 2회 개최에 이르기까지 쉴 틈 없이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특히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지난 9월(일부는 8월)부터 첫 학기를 운영한 이후에 학교 차원의 수업 개선과 다양한 체험 및 자율 활동의 활성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혁신을 포함한 수업 개선은 학교 자발성에 기초해 각 학교의 특성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협업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학교와 협업기관 간의 파트너십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가 2016년 이후에 성공적으로 중학교 전체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서로 win-win할 수 있는 협업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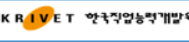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협업체제의 구축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다 성공적인 협업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의 추진 방향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폭넓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발견하고 키워가도록 하는 것인 만큼 학교와 사회의 연계를 위한 협업체제의 중요성은 초기부터 강조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체험활동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폭넓은 협업체제 구축이 추진되었다. 협업체제 구축은 다음 [그림 5]에서 보듯이,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차원의 여러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림 5] 자유학기제 추진을 위한 협업체제

### 1) 중앙정부 차원의 협업체제 구축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문기관과의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앙에서부터 광역, 지역에 이르는 체험 인프라의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들과의 협업 및 MOU체결을 추진하였다. 현재 자유학기제 공식 협업기관은 [그림 6]과 같이 총 15개 기관이다.

|                                                                                                |                                              |
|------------------------------------------------------------------------------------------------|----------------------------------------------|
|  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 체험 및 관람, 수상스포츠와 자전거 교실 운영                |
|  한국과학창의재단     | 과학문화 확산, 창의·인성교육, 과학교육네실화 사업 운영              |
|  한국교육개발원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교원 연수, 학교컨설팅, 홍보 및 협업체제 구축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성취 수준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평가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을 통해 연극, 음악, 무용, 공예, 사진, 디자인 교육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로교육포럼, 진로체험 활동, SCEP 프로그램 개발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동아리, 국제 교류, 문화활동과 청소년복지·보호 사업                |
|  한국콘텐츠진흥원     | 게임·만화·방송영상·이야기 등의 콘텐츠 정보 제공                  |
|  EBS          | 직업 진로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교육 멘토링 및 직업체험 학교 등 확대 운영 |
|  한국언론진흥재단     | 미디어 교육 전문강사 파견, 신문제작체험교육, 글쓰기 수업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청소년 방송단 관련 인프라, 학교교육활동 성과 제작 신문 및 UCC 제작 인프라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교사 및 청소년 대상 상담, 자살예방교육, 청소년 인권 교육, 학습클리닉 등   |
|  한국고용정보원      | 커리어액션, 직업체험 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콘텐츠 지원     |
|  한국잡월드        |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제공, 사회학습 종합 인프라제공, 건전한 직업관 형성지원  |

[그림 6] 중앙정부 차원의 자유학기제 지원 협업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9개 기관은 6월 발대식 당시 MOU를 체결한 기관이며,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잡월드 등 6개 기관은 그 이후 참여하였다. 또한 12월부터는 산업인력공단이 신규로 참여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유학기제 지원 협업체제는 부처간, 기관간 벽을 낮추고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좋은 모델이다. 또한 21세기 핵심역량 교육과 관련해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학습생태계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기존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했던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배워 학교 교육과 사회 간의 갭을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협업기관 네트워크는 두 차원의 협의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장관 및 15개 협업기관장이 참여하는 정례회의가 2개월에 1회씩 개최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 및 15개 협업기관의 실무위원 정례회의가 월 1회씩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적 회의를 통해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에 따른 협업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협업기관과 연구학교 간 연계체계를 강화해 왔다.

주로 진로교육,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신문활용교육(NIE), 학생선택 프로그램 등을 위한 교·강사 제공, 연수 및 컨설팅, 콘텐츠 제공 등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의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협업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학교차원에서 자유학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협업기관들은 자유학기제 컨설팅단을 구성해 컨설팅트 교육 및 학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기도 했다.

## 2) 시·도교육청 차원의 협업체제 구축

시·도교육청이 교육기부기관과 MOU를 체결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MOU체결기관과 연계 및 정보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진로교육지원센터’등을 설치하여, 지역내의 다양한 체험기관과 학교를 연결하는 인프라 매칭 시스템을 운영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진로정보, 진학정보, 진로캠프,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들에 이동차량을 지원하거나 도시 인프라와 실질적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 3) 교육지원청 및 학교 차원의 협업체제 구축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지역인사,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자유학기제후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시설 및 재능기부자 등의 확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CRM(창의적체험활동지도) 시스템을 통하여 전국의 체험활동 가능 기관, 전문 강사 등의 정보를 얻어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다.

## 4) 42개 연구학교들의 인프라 활용 현황

연구학교마다 취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모형(진로탐색활동 모형, 학생 선택 프로그램 모형, 동아리활동 모형, 예술·체육활동 모형, 혼합 모형)에 따라 인프라 활용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포괄적 개념에서의 진로활동 또는 직업체험 중심의 활동 형태를 띠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협업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각 연구학교차원에서 필요에 맞게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

연구학교 차원에서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활동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1 유형별 인프라 활용 사례**

| 유형            | 인프라(사례)                        | 학교             |
|---------------|--------------------------------|----------------|
| 진로전반          | 중앙정부 제공 15개 협업기관 및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 42개 연구학교 모두 포함 |
| 직업체험          | 한국소비자보호원, 데이터센터 등              | 수서중학교          |
|               | 광릉수목원, 중미산천문대 등                | 거원중학교          |
|               | 부모님 직장, 진로체험홍보관 등              | 잠실중학교          |
|               | 지역 사회 기관                       | 삼각산중학교         |
|               |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청소년기술현장 등         | 중앙중학교          |
|               | 인하대학교,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 등            | 부평동중학교         |
|               | 대전보건대학,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등            | 회덕중학교          |
|               | 삼성틸라이트, 화성 기아자동차 등             | 청북중학교          |
|               | 부모님 직장, 에버랜드 등                 | 서현중학교          |
|               | 아리랑 문학관, 마이스터고 등               | 김제중앙중학교        |
|               | 구등장농업문화유산추진위, 조선소 등            | 청산중학교          |
|               | 사과농장, 도자기체험장 등                 | 문경서중학교         |
|               | 지역 사회 기관                       | 창덕중학교          |
|               | 제주대학교, 부모님 직장 등                | 한라중학교          |
|               |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등               | 백양중학교          |
| 동아리연계<br>체험활동 | 전남대학교, 광주디자인센터 등               | 동신중학교          |
|               | 한밭 수목원, 대학 등                   | 대전서중학교         |
|               | 지역 사회 기관                       | 서귀중앙여자중학교      |
|               | 미국문화원, 과학축전 등                  | 거원중학교          |
| 교과연계<br>체험활동  |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대학교융합기술원 등         | 천내중학교          |
|               | 정원박람회, 고흥 나로우주센터 등             | 선운중학교          |
|               | 안동하회마을, 안동한지공예관 등              | 연암중학교          |
|               | 지역 사회 기관                       | 신길중학교          |
|               | 지역 사회 기관                       | 순천이수중학교        |
|               | 지역 사회 기관                       | 북삼중학교          |
| 문화예술<br>체험활동  | 세종시교육청 주교나 스마트 아트 페스티벌         | 조치원여자중학교       |
|               | 천문대, 승마장 등                     | 줄포중학교          |
|               | 아리랑 문학관, 전주영상센터 등              | 김제중앙중학교        |
|               | 영어마을 등                         | 거제중앙중학교        |

\* 학교마다 한 가지 활동유형을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복 기입된 학교가 있음.

\* 구체적인 체험기관을 운영계획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학교는 '지역 사회 기관' 으로 표기하였음.



‘진로전반’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 유형에 대해서는 42개 연구학교 중에서 해당 유형을 특화하여 인프라를 적용 및 활용하고 있는 학교를 파악할 수 있다.

- (1) 진로전반: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활동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진로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직업체험, 동아리연계 체험활동, 교과연계 체험활동,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모두 혼합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42개 연구학교가 모두 포함된다.
- (2) 직업체험: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특화되어 있는 직업 체험을 실시한다.
- (3) 동아리연계 체험활동: 학생들이 속한 동아리 차원에서 동아리 특성에 맞게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 (4) 교과연계 체험활동: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등의 교과와 관련하여 각 교과목마다 관련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 (5)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역사회의 박물관, 미술관 등을 활용하여 교양활동을 실시한다.

#### 5) 학생 선택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학생선택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여러 분야 협업기관 및 전문가들의 협력을 구해 다음 [그림 7]과 같이 10종의 학생선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    | 프로그램        | 연구책임자                      |
|----|-------------|----------------------------|
| 1  | 요리 실습       | 한경수 교수(경기대 관광대학 외식·조리학과)   |
| 2  | 패션 디자인      | 이경화 교수(가톨릭대 생활과학부의류학과)     |
| 3  | 미디어와 통신     | 현대원 교수(서강대 신문방송학과)         |
| 4  | 드라마와 사회     | 이대영 교수(중앙대 예술대학 연극학과)      |
| 5  | 미니컴퍼니 경영    | 홍종희 차장(중소기업중앙회)            |
| 6  | 우리역사 바로 알기  | 한철호 교수(동국대 사범대 역사교육과)      |
| 7  | 농림수산체험활동    | 최창욱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8  | 녹색학교 만들기    | 조윤미 대표(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 9  | 한국의 예술 발견하기 | 박신의 소장(경희대 경영대학 문화예술경영연구소) |
| 10 | 영상 스토리 창작   | 이대영 교수(중앙대 예술대학 연극학과)      |

[그림 8] 학생 선택프로그램 내용 및 연구책임자

현재는 여러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택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4.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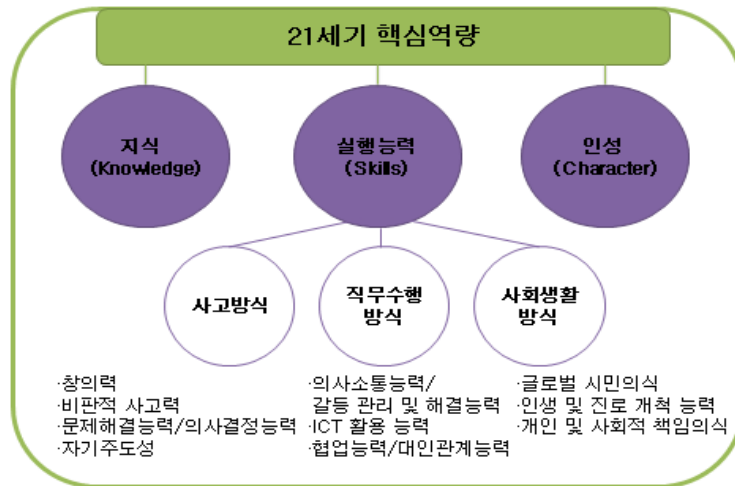
창조경제가 될수록 창의성, 지식, 문화, 기술이 일자리 창출, 혁신, 사회통합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교육은 더 이상 교육계만의 관심사가 아니며,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심을 갖는 모든 부처 및 사회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집단지성의 도래가 암시하듯이, 학문 간,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 되면서 교육과 사회 간 연계성도 급속도로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향후 학습생태계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협업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벽을 낮추고 지역사회 문화, 청소년 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다양한 활동중심 수업 및 체험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문화, 청소년 단체들 또한 자유학기제를 계기로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각 단체/기관의 특성을 살린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의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면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활동중심의 학생참여 수업 운영은 물론 진로체험,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학생선택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키울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모든 창조적 행위가 기존의 지식에 기반하며, 창의성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하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꿈과 끼의 발현이 누구에게나 최고의 교육 목표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타자(공동체)와의 공감 능력, 소통 능력, 협동적 문제해결력 등 비인지적 역량과 인성의 함양이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천재적 창의성(Creativity, big C라 함)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일상의 직업 및 생활세계에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보편적 창의성(creativity, small c라 함)에 기반한 집단 창의성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넷째,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인적 교육의 관점에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요청된다. 다음 [그림 8]은 지식, 실행능력, 인성을 포괄한 전인적 교육의 관점에서 ‘21세기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최상덕 외(2013b)

[그림 9] 21세기 핵심역량의 구성 요소

##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5.28 교육부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5.28 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
- 마틴 셀리그먼(2011). 플로리시. 물푸레
- 최상덕 외(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 전략 연구. 한국교육  
개발원
- 최상덕 외(2013b).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  
축. 한국교육개발원 협동연구보고서 초고.
- Autor et al., (2003).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 발표 2



# 지역사회 자유학기제 청소년활동 연계협력 방안

성 은 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역사회 자유학기제 청소년활동 연계협력 방안<sup>1)</sup>

## 1. 왜 자유학기제인가?

### 1)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

최근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정책에 있어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것 중의 하나는 진로교육과 관련된 정책이다. 2009년 ‘창의적 체험활동’을 교육과정에 도입함에 따라 청소년 자신의 흥미, 특기, 적성에 적합한 자기 계발 활동을 통하여 진로탐색 및 설계를 할 수 있는 진로활동 영역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또한, 2013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상위권에 있지만, 해당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와 행복도 지수는 세계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주지하면서,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지라도 정작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유학기제’라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제안하고 실행 중에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자유학기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행복한 특징을 보이는 청소년의 주요특징 1순위는 ‘가정생활만족’이며, 2위는 ‘희망 미래직업 있음’이라고 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즉,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업 및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벗어나 미래에 대한 진로비전을 수립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학업에 대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청소년 정책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기 정도는 과도한 학업과 시험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꿈과 끼’의 개발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미래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자는 것이다(교육부, 2013; 성은모, 2013). 여기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진로교육(career education)’ 영역인 것이다.

## 2) 진로교육의 개념과 활동 내용

진로교육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비전을 설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원하는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측면에 있어 진로교육은 적성과 능력을 포함한 자아특성 및 개성의 발견과 개발이라 할 수 있고, 교육측면은 삶 전체 맥락에서 일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측면에서는 개인 삶의 질과 관련된 교육, 고용, 복지 정책의 주요 가교 역할을 하여 건전한 직업관 및 인성을 갖추 창의적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지연, 2013, p.24).

이와 같은 진로교육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서는 자기이해활동, 진로정보탐색활동, 진로계획활동, 그리고 진로체험활동 등으로 구분되며(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영역에서는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탐색, 그리고 진로디자인과 준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진로교육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진로탐색과 진로체험활동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 3) 진로교육의 교육적 효과

진로교육의 교육적 활동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탐색과 진로체험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성은모(2012)에 따르면, 직업체험활동을 많이 한 학생일수록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등과 같은 학교생활 적응, 공동체 의식과 타문화 수용도와 같은 사회적 정서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는 다양한 직업체험활동이 청소년들의 사고 깊이를 더해주고 개인의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할 기회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김기현과 맹영임(2011)에 의하면, 청소년 진로체험에 따른 교육적 성과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은 진로체험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직업에 대한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직업체험활동을 통하여 노동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대해 학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진로설계를 구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둘째, 학교는 진로직업체험의



내용 및 성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체험결과를 진로지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학교, 지역사회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김기현, 맹영임, 2011).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간관계형성능력, 정보활용능력, 미래설계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표 I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을 통한 기대효과**

| 영역           | 영역설명                                                                | 능력 설명                                                                                       |
|--------------|---------------------------------------------------------------------|---------------------------------------------------------------------------------------------|
| 인간관계<br>형성능력 |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며,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하여 공동으로 일을 추진    | 【타인 이해능력】<br>자기이해를 심화하며,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며, 상호 인정의 중요함을 알고 행동하는 능력                            |
|              |                                                                     | 【의사소통능력】<br>다양한 집단, 조직에서 의사소통, 인간관계를 구축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추진해 나가는 능력                               |
| 정보활용<br>능력   | 학습, 일의 의의, 역할 및 다양성의 이해, 폭넓은 정보를 자신의 진로와 인생을 선택하는 활용                | 【정보수집 및 탐색능력】<br>진로, 직업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탐색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 라이프스타일을 검토하는 능력 |
|              |                                                                     | 【직업이해능력】<br>진로직업체험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사회, 기업과의 관련성과 사회 및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능력            |
| 미래설계<br>능력   | 꿈,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인생과 생활에 대해 생각하며,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진취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       | 【역할파악 및 인식능력】<br>생활, 일에서 다양한 역할, 의의 및 그 관련성을 이해하며,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나가는 능력         |
|              |                                                                     | 【계획실행능력】<br>자신의 장래 목표로 하는 진로를 생각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진로계획을 세우며,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능력                   |
| 의사결정<br>능력   | 자신의 의사와 책임에 기초하여 보다 나은 선택과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의 과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 극복 | 【선택능력】<br>다양한 진로선택지를 비교, 검토하거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 결정하는 능력              |
|              |                                                                     | 【의사결정능력】<br>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이해하며, 선택결과를 수용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해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나가는 능력                |

먼저, 인간관계형성능력은 평소 접하지 못하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존재 및 가치의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다. 그리고 협업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활용능력은 진로 및 직업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탐색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자신의 진로 및 직업선택을 구체화할 수 있다. 미래설계능력은 진로직업체험을 통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 진로를 선택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능력은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하여 체험 전 자신이 희망하던 진로 및 직업에 대해 재검토하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 및 직업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2. 자유학기제의 성공요인: 국내외 자유학기제 관련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그렇다면, 과연 자유학기제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자유학기제의 성공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외 자유학기제 관련 사례로부터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1) 국내 자유학기제 관련 사례

국내 자유학기제과 관련하여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교 진로교육 운영의 주요특성과 제한점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라 교과군 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로 학기당 이수과목을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축소하고, 기존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모든 학생들은 기초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학교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인 것이다.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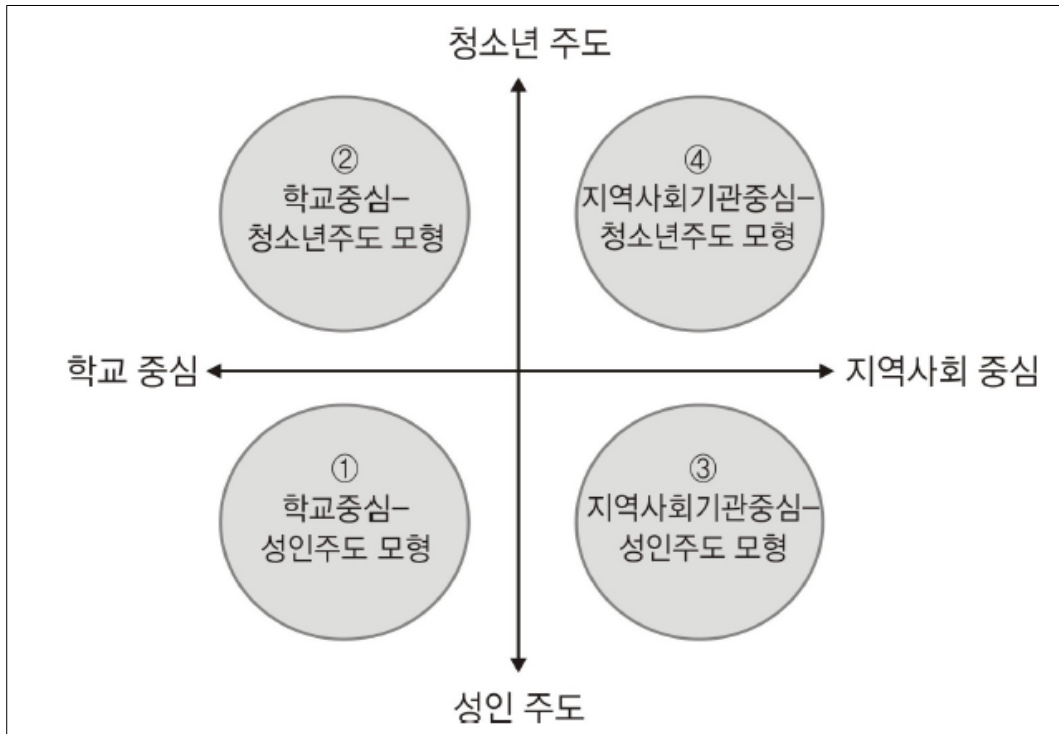
- ①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재량 배정 가능,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교급별, 학년별 활동영역 및 내용의 선택·집중 운영 가능
- ②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간 통합 편성 운영 가능
- ③ 학생들의 흥미·소질, 학교 및 지역의 실정 고려, 계획수립·운영에 학생의사 적극 반영
- ④ 학교의 필요에 따라 기준시간(단위) 이상 확보 운영 가능, 시간운영의 통합·집중 등 융통성 허용

- ⑤ 활동의 내용·조직단위·장소·시설 등 여건 고려 정일제·격주제·전일제·집중제 등 운영 가능
- ⑥ 자율활동의 국토순례·봉사·진로체험활동은 방학기간 운영 가능
- ⑦ 입학초기 적응활동, 특히 초등학교 1학년과 사춘기 학생의 경우, 자율활동 중 '적응활동'으로 편성 운영
- ⑧ 학교·교사·학생 요구에 따라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 연계 운영 가능
- ⑨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자원(인사·시설·기관·자료 등)의 자원파악 활용
- ⑩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의 인적자원과 제반시설·설비·자료·프로그램 지원
- ⑪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연구과정 개설, 연구학교 운영 지원

이처럼 각 기관에서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과, 비교과 활동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경험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교육과정의 제약으로부터 탈피하여 능동적이면서 주도적 학습능력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김종백, 2010). 둘째, 체험활동은 상황중심적이면서도 문제해결 중심적이어야 한다(김현철 외, 2010). 단순히 정보의 기억과 이해보다는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경험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구성주의 교육패러다임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도 이러한 교육패러다임에 기반한 교육목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체험활동은 협동성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김현철 외, 2010).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치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은 학습자 공동체 활동에서 협력적 문제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기술 및 협력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김선희, 김언주, 박은희, 심재영, 2006). 즉,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습공동체나 협력학습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체험활동은 융합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김현철 외, 2010).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이 중요하다. 즉, 기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비교과를 통합하여 활동을 기획하고, 체험활동 자체는 상황중심·문제해결중심으로 설계하되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과 설계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김기현, 맹영임, 2011;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김현철, 2013; 성은모, 2013). 특히, 김현철 등(2012)은 청소년 체험활동의 운영유형을 청소년 주도성과 지역사회연계정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4개의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1]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모형 매트릭스 (김현철 외, 2012, p.180)

첫째, 학교중심-성인주도 모형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되, 학교가 중심이 되어 자원을 연계하고 운영하며 교사들이 주도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을 적용해서 지역사회자원을 활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둘째, 학교중심-청소년주도 모형은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을 학교가 주도하지만, 교사가 아닌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모형으로서,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지역사회기관중심-성인주도모형은 지역사회자원을 학교에 연계해 주는 역할을 지역사

회기관이 맡는 모형으로, 성인주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주도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정교한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지역사회기관중심-청소년주도 모형은 청소년 체험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기관이 지역사회연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청소년 주도로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체험활동의 효과도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모형은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연계정도에 따라 각자의 참여역할이 달라지고, 각 기관의 상황적 특수성이나 청소년들의 참여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자원이나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성공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순적인 것이 성공적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의 활용과 지역사회기관의 협조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체험활동의 제한점이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 또한 부족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며, 연계강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연간계획수립, 업무협의회 개최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구축되고 있다는 것이다(김현철 외, 2012). 따라서 보다 청소년 체험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되고 이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교육 운영과 주요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청소년 진로체험의 궁극적 목표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직업의 사회적 유용성을 발견하게 하고 많은 수의 직업 중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찾아보게끔 하는 동기유발 및 진로설계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임지연 외, 2006). 이와 같은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을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자기이해 활동, 진로정보 탐색활동, 진로계획 활동, 진로체험활동으로 구체화하면서 청소년들의 심도있는 진로체험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각 활동영역별 세부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2** 진로 및 직업체험 활동의 영역

| 영역        | 활동 내용                                                                              |
|-----------|------------------------------------------------------------------------------------|
| 자기이해 활동   | 자기이해 및 심성 계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활동, 각종 진로 검사 등                                     |
| 진로정보 탐색활동 | 학업 정보 탐색, 입시정보 탐색, 학교 정보 탐색, 학교 방문 등<br>직업 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제도 탐색, 직장 방문, 직업 훈련, 취업 등 |
| 진로계획 활동   | 학업 및 직업에 대한 진로 설계, 진로 지도 및 상담 활동 등                                                 |
| 진로체험 활동   | 학업 및 직업 세계의 이해, 직업 체험 활동 등                                                         |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은 자신의 특성, 소질과 적성, 능력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고, 각종 검사, 상담을 통해 진로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진로와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 및 설계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학업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직업체험활동 기회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한상철 외, 2009).

진로 체험활동은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활동 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 등으로 이루어지는 데, 세부적인 기관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3** 청소년활동시설의 유형

| 시설유형        |                   | 내용                                                                            |
|-------------|-------------------|-------------------------------------------------------------------------------|
| 청소년<br>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             |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             |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             |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으로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
| 청소년<br>이용시설 |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청소년 활동 시설에는 청소년지도사<sup>2)</sup>를 중심으로 진로탐색, 진로교육, 진로상담, 리더십 캠프, 취업 면접훈련, 멘토링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 및 직업체험 활동을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한상철 외, 2009). 첫째, 학생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둘째, 학생의 인성, 적성, 진로 성숙도 등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필요한 상담을 실시한다. 셋째, 진로 관련 상담 활동은 담임교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중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가장 밀접한 교과교사를 진로지도교사로 하여 학생 개인별 혹은 집단별 진로 상담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진로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상담 교사나 전문적 소양을 가진 학부모 또는 지역 사회 인사의 협조를 받는다. 넷째, 학생의 학업 진로, 직업 진로에 대한 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꾸준히 수정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다섯째, 진로 선택에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중등학생의 경우 ‘직업과 진로’ 과목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교 진학과 고교 1학년에서 진로에 따른 교과목 이수 및 고교 3학년에서 학업 혹은 직업 선택을 지도하는데 중점을 둔다. 여섯째, 학교 및 지역 사회 인사, 지역 사회 시설 등을 활용하여 장래에 학생들이 선택하게 될 학업과 직업에 대해 탐구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 운영에 있어 지적되는 제한점중의 하나가 바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이나 직업체험에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하고 학교-지역사회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진로체험은 진로박람회(엑스포), 산업체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참여 및 견학 등과 같은 단순 활동·일회성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자원과 지역사회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현, 맹영임, 2011).

## 2) 외국 자유학기제 관련 사례

국의 사례 중에서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사례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와 일본의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2) 청소년지도사는 관계형성기술, 기획기술, 리더십, 연구기술, 요구분석, 상담, 코칭, 학습촉진기술, 협동학습 지도 기술, 과제활동지도 기술 등을 훈련받게 된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와 비슷하게 지나친 학력 경쟁의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내적 성장과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74년 당시의 교육부장관 리처드 버크(Richard Burke)에 의해 소개되었다(Jeffers et al., 2007; 김현철 2013 재인용). 15세에서 16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간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적 프로그램인 TY의 주요한 목표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학생들이 사회를 알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기능, 자신감, 책무성과 같은 사회에서의 필요한 실제적인 능력을 키움으로써 인성적·사회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다 학문적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함으로써 일반적, 기술적, 학문적 기능을 발달시키고 이를 통해 학습에서 성숙하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성인사회와 직업생활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업 및 경력과 관련된 성숙을 꾀하는 것이다”(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p.34 재인용).*

리처드 버크 장관은 전환학년제를 제안하면서 학생들에게 경쟁의 우물에서 벗어나 1년 간 “멈추어 서서 (자신을) 응시할” (Burke, 1974; Jeffers 2013, p.13 재인용) 기회를 제공해 주어 자신과 사회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돕자고 주장하였다. 현재의 전환학년제는 학생의 성숙과 더불어 전환학년제는 교사들의 역량 증진,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김현철, 2013).

당시 전환학년제 발전의 전반적 지표 역할을 한 것은 Hargreaves 등(1996)이 공동 집필한 <변화를 위한 학교교육: 청소년을 위한 교육 재창조(Schooling for Change: Reinventing Education for Early Adolescents)였다. 더불어 Howard Gardner(1984)의 다중지능 이론 또한 TY의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전환학년제 도입 초기에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1974년 시행 첫 해에는 참가 가능한 800개의 학교 가운데 단 3개 학교만이 참여하였다(Jeffers, 2011). 하지만 90년대 들어 국가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면서 참여 학교가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는 아일랜드 전체 80%의 학교가 전환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의 55%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Clerkin, 2013; Jeffers, 2011).

전환학년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Government of Ireland, 1995; Jeffers, 2007; 김현철 2013, p.6 재인용).



- ① 학제적인 프로그램
- ② 학생 중심
- ③ 학생 스스로의 책무성 강조
- ④ 각종 시험증서를 넘어선 삶의 기술
- ⑤ 성숙의 기회
- ⑥ 학습내용의 복잡과 직업선택의 기회
- ⑦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교사들의 역량 증진
- ⑧ 학교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실천적 학습 방법
- ⑨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교육적 요구 충족

이와 같이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가 정착되기까지 무려 40여년 이상 걸렸으며, 현재까지도 55%정도의 학생들만 참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환학년제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정착되기 까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가 4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주요성과를 Jeffers(2007)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김현철, 2013, pp.12-13에서 재인용).

- ① 학제적인 교육, 교과 간 연계 운영
- ② 전환학년제 종료 시까지 LC(Leaving Certificate, 고등학교 졸업시험) 관련 학습의 연기
- ③ 지역사회와의 연계
- ④ 보상교육의 확대
- ⑤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더 많은 정보 네트워크 확보
- ⑥ 형성평가 개선
- ⑦ 학교 내 개혁 강화

이중에서 전환학년제 성공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지역사회의 연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이기봉 외(2011)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환학년제 수업 대부분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없이는 전환학년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전환학년제 기간 동안 대부분 2주 이상의 직업체험활동을

하는데, 이 때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고 학생들의 직업체험을 돕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전환학년제의 성공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즉, 학부모들은 자녀가 성공적으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직업체험 일터를 연결해 주고, 지역사회는 학생들의 직업체험 일터 제공에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의 협조적인 분위기가 도입 초기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전환학년제가 시행되면서 지역사회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일본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정책 사례<sup>3)</sup>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말 일본은 주입식 교육과 극심한 학력경쟁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교육과정 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1998년과 1999년 ‘학습지도요령(국가교육과정)’ 개정이 고시됨에 따라 학습내용이 감축되고 ‘종합적인 학습시간(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이 되었으며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유토리 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이 ‘종합적인 학습시간’을 포함한 직업체험활동을 강조하면서 가장 비중을 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의 교육력’이었다. 청소년 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내각부는 ‘종합적인 학습시간’을 포함한 직업체험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종합적인 학습시간’이 도입된지 10여년이 흐르면서 모범적인 운영 사례 대부분은 지역사회를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케센누마시와 효고현의 ‘트라이 야르 워크’가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직업체험활동을 활성화 시킨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케센누마시는 10여년 동안 ‘종합적인 학습시간’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를 수직·수평적으로 연계해 나갔다. 처음에는 한 학교에서 시작하였지만 케센누마시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자원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성과를 낳았다. 환경체험활동을 특화시켜 지속발전교육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학습시간’의 운영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시도를 해온 것이다(이기봉 외, 2011). 즉,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의 노력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이다.

효고현의 ‘트라이 야르 워크’는 1996년 공립중학교 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1주일 직업체험활동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례이다. 연간 5만명 정도의 중학생이 ‘트라이 야르 워크’에 참여하고

---

3) 김현철 (2013, pp.11~18)의 ‘학교 체험활동의 활성화 및 실천방안’ 중 일본의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정책 사례를 요약·정리하였음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트라이 야르 워크'에 참여한 체험활동터는 15,948개소에 달한다고 한다. 지역사회 전체가 연계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트라이 야르 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위조직으로 효고현 '트라이 야르 워크' 추진협의회와 '트라이 야르 워크'추진지원회의가 있으며, 시정단위와 중학교구에도 '트라이 야르 워크'추진협의회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트라이 야르 워크'가 운영되면서 학생들은 달성감, 자존감 등이 높아지고, 일상생활과 학습, 근로의식, 직업관,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활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됨으로써 진로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트라이 야르 워크'의 성과가 알려지면 다른지역으로 직장체험활동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 3) 성공적인 자유학기제를 위한 시사점

이와 같이 국내외사례를 통해 진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정책들의 운영에 대한 제한점과 성공사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하나의 요인으로归结된다. 자유학기제의 핵심 성공요인은 바로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학교 진로교육에서 제시하고 성공요인 중의 하나도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에 있으며,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학교 진로교육의 제한 요인도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 미흡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일랜드나 일본의 성공사례는 반드시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진로탐색이나 직업체험활동과 같은 진로교육이 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 청소년관련 시설과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과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협력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 3. 자유학기제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방안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한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 아프리카 속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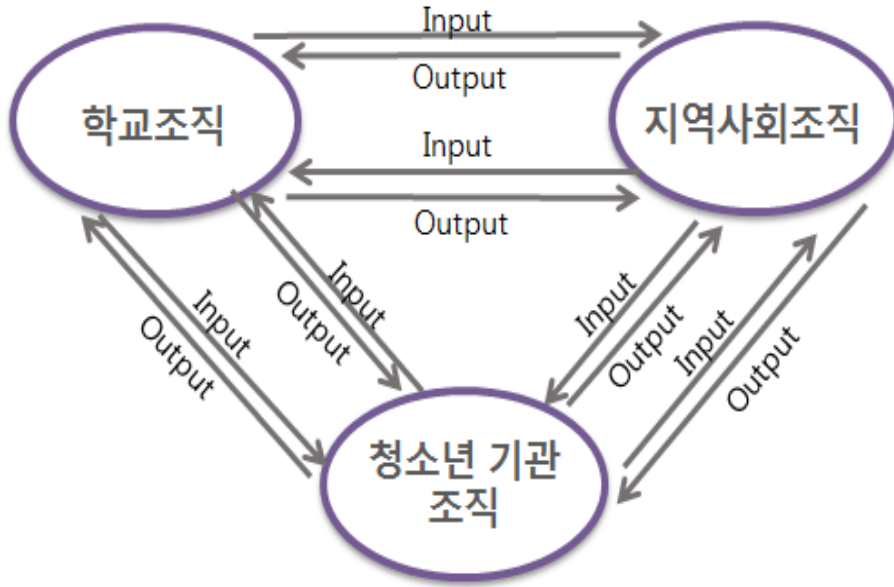
청소년 정책과 교육정책에 있어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진로교육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을 위한 전문가와 다양한 인프라 및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 관련 기관조직과 연계하고자 하는 국가조직(교육부), 지역학교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조직의 많은 관심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이 학교 밖의 활동으로 간주되고, 학교와 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한 현실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진로교육과 관련된 청소년 및 교육정책이 강조되면서 청소년계가 가지고 있는 휴먼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 및 운용함으로써 청소년 활동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주요이슈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체제 구성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연계 및 협력체제는 단순히 사회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통한 주도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회의 변화는 사회를 둘러싼 조직체제, 즉 청소년 기관 조직(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부 등), 학교조직(학교장, 교사, 행정지원자 등), 학교지원조직(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의 동시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조직이 생존력, 자율성, 영향력의 파급효과를 가지면서 각 조직 간의 주요 결과물들을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연계 시스템을 통하여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시스템은 마침내 그 사회의 규범적 가치에 수용되고, 그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부여받아 지속가능하게 된다(Esman(1972)).

자유학기제가 사회와 연계하는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이 생존력, 자율성, 영향력의 파급효과를 가지면서 각 조직 간의 주요 결과물들을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정책기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 단위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단위의 진로교육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기관조직, 학교조직, 지역사회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input과 이를 활용하여 산출하고자 하는 output의 개념이 명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조직이 지역사회조직의 결과물을 활용(input)하고자 한다면, 학교조직은 이에 대하여 지역사회조직에 새로운 결과물을 제공(output)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조직 또한 학교조직의 결과물을 활용 (input)하고자 한다면, 지역사회조직은 이에 대해 학교조직에 새로운 결과물을 제공(output)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 간의 input은 새로운 output을 창출하고, 새로운 output은 또 다른 조직의 input이 되어 또 새로운

output을 창출하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하나의 지역사회조직 시스템으로써 생태계적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4] 지역단위 진로교육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계 시스템의 기본개념도

하지만, 이러한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관계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외부적인 환경의 강제적인 요구 또는 한 조직의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결과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는 생존력, 자율성, 그리고 파급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는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해 진다. 즉, 조직간 선순환구조의 시스템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진로교육을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직 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체질개선과 능동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외부환경의 적극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성공적인 자유학기제를 위한 지역사회조직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유사한 대부분의 체험활동 정책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없이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 자녀가 성공적으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직장을 연결해 주고,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직업체험에 대해 우호적이고 이를 도와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김현철, 2013; 이기봉 외, 2011)이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검증되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성공 열쇠는 지역사회와 어떠한 연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의 연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의 참여를 이끌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라 보인다.

이러한 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해서는 자유학기제를 위한 사회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 인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 세 가지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지역 청소년들은 우리지역사회에서 책임을 진다.’는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 이는 힐러리 클린턴이 학교교육에 사회의 참여를 호소하며 회자되었다고 한다(성은모, 2013에서 재인용). 이는 곧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해당지역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해야 한다는 가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지역 청소년들은 우리 이웃의 자녀이자 형제자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찾아 주자는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진로교육을 사회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는 ‘청소년들이 우리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라는 인식과 믿음을 확산시켜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회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높아져 사회를 발전시키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인식을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진로교육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있어 단순히 일터제공을 넘어서 사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육성이라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지역에서 체험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마을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 높아져 다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자치시민회의 김동엽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가 참여하면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협조적인 분위기와 공감대 형성을 가속화 시켜야 한다.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노력과 함께 실제적인 성공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믿음과 신념을 불러 넣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참여하여 진로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성공한 국내외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사회가 참여함으로써 성공하게 되는 output의 모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결국 이것은 사회가 공동발전 및 상생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발전의 모습을 청소년의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 2) 사회 참여 활성화 전략

사회조직의 참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과 아울러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회 참여 활성화 전략은 진로체험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해나갈 체험기관을 발굴, 섭외, 매칭하는 일, 진로체험활동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각각의 요소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조직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 협의체의 역할은 진로교육과 관련된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통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각 기관장을 중심으로 사회 협의체를 운영하여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의 조직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자로서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에 따른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에 있어 학부모들은 지역사회에 일터를 잡고 생산자로서 또는 다양한 일터에서 생산해 내는 자원에 대한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에게도 진로교육에 따른 체험활동이 단순히 스펙 쌓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의 장에 대한 확대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이 지역사회의 일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지역사회 협의제 구성원으로 적극 참여하여 활동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셋째, 자유학기제에 대한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알고 자기주도적으로 일터 체험 제공 기관을 발굴하고 유도하여 지역사회 조직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 먼저 최적의 체험기관을 발굴/섭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섭외하기에 급급하다 보면 교육적 기준이나 교육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체험기관을 선정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추진한 체험활동의 의미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기업윤리를 갖추고 있는 체험기관, 교육철학과 의지를 갖춘 일터를 섭외하고 청소년과 일터가 공동으로 의미 있는 체험활동을 기획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 체험학습에서 원하는 곳에 가지는 않았는데 방문한 일터에서 담당해주셨던 분이 굉장히 일과 삶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한다.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런 분들이 사회에 많이 있어야 가능하지 싶다.(학부모 C)”

“멘토님이 건축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어른 애기에 낄 필요 없어’라는 태도가 아니라 아이들을 토론에 참여하는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존중해주니 아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는 바도 많았다. 그런 경험을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삶, 교육자로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었다.(학부모 H)”

큰 기업체를 간다고 해도 체험 담당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모 대기업에서는 기념품이나 나눠주고 사진 찍고 아이들 모아놓고 회사 소개하는 식의 견학 수준의 체험을 했을 뿐, 실질적으로 직장인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실질적인 교육체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할 것이다.(학부모 F)”

이와 같이 진로체험기관의 크기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교육적 열의와 마인드가 진로체험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경험을 좌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일련의 진로체험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능하면 지역사회 기반 일터로 근거리 우선 선정
- 청소년 유해환경의 일터 지양
- 비정규직이 많은 일터 지양
- 청소년이 노동하고 있는 일터 지양
- 일터 체험이라는 명분아래 청소년의 노동력 착취 지양
- 견학위주 진로체험활동 지양

진로체험기관 발굴에 있어 일터 제공 기관자체를 찾기 쉽지 않을뿐더러 설상 일터를 제공하더라도 그 체험기관의 교육적/윤리적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진로직업체험 추진운영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나가도록 돕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전략을 자원 형태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원의 형태는 크게 공공 자원과 민간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자원의 경우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접근이 쉬우며, 일터기부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덜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다. 관리공단 등을 통한 산하기관과 연계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개별단위의 접근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선언적 그림과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민간자원의 경우 경제적 비용 손실에 다소 민감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경제적 보상보다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을 발굴하는 방식은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검증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고 사업취지를 충분히 이해시켜 참여를 독려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표 4>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섭외 사례

| 구분       | 특성                                                                                                                                                                                                                                                         | 사례                                                                                                                                                                                                                                                                       |
|----------|------------------------------------------------------------------------------------------------------------------------------------------------------------------------------------------------------------------------------------------------------------|--------------------------------------------------------------------------------------------------------------------------------------------------------------------------------------------------------------------------------------------------------------------------|
| 공공<br>자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접근이 쉬우나 관료적 분위기</li> <li>■ 실질적 직업체험보다는 라운딩과 기관소개에 그치는 경향</li> <li>■ 공적예산의 투입으로 운영되므로 기부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덜 민감</li> <li>■ 관리공단 등을 통한 산하기관과 연계</li> <li>■ 개별단위의 접근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선언적 그림과 행정적 조치가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관리공단 산하에 많은 기관이 있음(서대문의회, 자연사박물관, 형무소, 서대문체육문화회관 등). 공단의 지침으로 일터를 개방. 재개방을 요청하자 대부분 거절(기관 내 자체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더 맡기에 부담됨)</li> <li>■ 홍은1동사무소는 ‘착한공간나눔 릴레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구청장의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 사업을 위해 자체공간을 의무개방하게 됨</li> </ul> |
| 민간<br>자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비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이에 대한 보상 및 대응책 필요</li> <li>■ 인증, 현판게시, 위촉장 제작 및 수여, 배너홍보</li> <li>■ 지역 풀뿌리 단체와 연계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점’ 은 학부모 진로코치단이 지역에 있는 커피숍을 소개한 곳으로 가게 대표가 평소 청소년과 교육에 관심이 많고 대표의 인품이 좋아 일터로 발굴함</li> </ul>                                                                                                                                  |

다섯째, 자유학기제 관련 지역사회의 진로체험활동 성공사례 및 프로그램을 모형화하여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진로체험과 관련된 일터를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도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몰라 포기하는 것이 지역사회 참여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먼저 일터를 제공한 전문가와 멘토-멘티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여야 한다.

“커피숍에 아이들 체험 온다고 해서 사장님이 고민하는 걸 봤다. 커피숍에 와서 아이들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보도록 하기도 어렵고, 서빙을 시킬 수도 없고... 상당히 난감해하는 것을 봤다. 프로그램을 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 잘된 프로그램을 정형화해서 포맷화하고 그것을 확산시켜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부분이 개인 사업자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책임자간의 모임을 운영하거나 유사 기관의 책임자들간의 연계를 추진해나간다면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조직이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 커피숍의 경우 아이들이 만든 커피는 100원에 판매를 한다던가, 일반인들이 기부 차원에서 커피를 구입하는 등 지역사회가 동참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프랜차이즈 차원에서 대형

커피 브랜드가 참여한다면 그 기업의 브랜딩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디어를 낸다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체험기관 B)”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를 위해 진로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진로체험활동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꾸준히 고민되어야 한다. 진로체험기관 입장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가 노력해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활동의 사전/사후관리에 있어 체험활동의 목적과 의도를 체험기관과 참여 학생 모두가 잘 이해하고 노력해야 할 측면이 있으며, 체험기관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이 있다.

#### 1) 철저한 사전/사후관리

진로체험기관에서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리적·경제적 비용을 할애할 뿐 아니라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다. 교육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방문하여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경우 다음에도 체험활동을 지원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관 방문 전 교육·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체험활동의 취지와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기관의 기회 제공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학습에 준비된 태도를 갖추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체험기관의 멘토/청소년지도사들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안전사고/문제상황을 예방하고 상황대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사업장에 가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충분히 시키셔야 되고 멘토에게 아이들의 자기소개를 보내어 주는 게 좋아요. 이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이번 일터 체험에 있어 무엇을 배울려고 그러는지 이 아이는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이런 부분도 관심 분야는 어디에 있는지 자기소개를 멘토에게 미리 보내주면 멘토가 이를 미리 숙지하고 있다가 이 아이들이 어떤 관심이 있는지 개별로 눈맞춤도 되고 단순히 일터 체험뿐만 아니라 향후에 진로 탐색에 있어서 교육자로서의 조언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게 필요하고요.(전문가 A)”

“사업장 방문을 하루 전에 안하고 당일날 가는데 당일날 갔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업장을 여러 개 여유 있게 여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사업장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아이들은 어른과 달라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멘토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불쾌해질 수 있어서 미리 멘토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사전 방문을 통해 멘토가 누군지 알고 찾아가는 교통수단을 알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이 수월하게 찾아가게 되고 반드시 팀별로 팀장을 그 안에서 선별해서 팀장의 리드에 따르도록 필요할 것 같다. 아이들과 멘토들간의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해줘야 좋을 것 같고요.(전문가 B)”

“사후관리에서도 굉장히 작년에 성공적으로 했지만 이수중학교에 선생님을 직능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올해 잘 마쳤냐고 물었더니 잘 마치긴 했는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힘이 드느냐 물었더니 이수중학교에서는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서 했지만 올해 신생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그게 잘 안 되서 그 학교가 먼저 일터 체험을 갔는데 그 다음에 이수중학교 학생들이 갔을 때 일터 개방을 안 하려고 했다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해야 할 다음 해의 자유학기제에 대해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타 학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의라던가 아니면 열정 이런 부분이 준비가 돼서 갔느냐에 따라서 사업장이 오픈마인드를 이후에도 계속 가지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거죠. 우리학교가 이것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결국은 전국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전문가 C)”

## 2) 적극적인 체험기관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의 제공

진로체험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니즈와 맞물려 학교와 기관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한 기관들이 교육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이를 계기로 얻을 수 있는 여러 효과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체험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형성과 같은 마케팅·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체험에는 다섯 명이 왔지만 만약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면 업무에 지장을 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체험을 오면 적어도 3일 정도 업무 진행을 못하고 준비하면서

또 시간을 쓰고 하니... 기업들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회사 측에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에서 참여 업체에 일정의 금액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질 높은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일터체험기관 A)”

“중학교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일련의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잘 맞아떨어졌어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프로그램의 취지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니즈가 맞았던 부분이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일터체험기관 B)”

“학교 측에서 먼저 의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마침 직업교과서라고 도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초중등 학생들에게 100가지 직업을 소개하는 건데요. 마침 연회중에서 연락이 왔고 마케팅 방침과 맞물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일터체험기관 A)”

그러나 사실상 체험기회 제공이 가져다주는 실증적인 마케팅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경제적 논리에 의존하여 교육 기부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역사회 의 자발적 참여라는 취지와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체험기관의 건강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감사 편지나 체험활동 중에 수집한 자료들을 모아 전달하는 것은 체험기관의 기부 활동에 대한 답례로 적합하다.

“연회중학교 같은 경우는 참가했던 아이들이 감사 엽서를 개인이 쓰게 하고요.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 한 장의 편지로 해서 단체로 활동했던 사진을 결과물로 같이 보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갔으면 100군데 그걸 했어야 했으니까 그걸 하시면서 멘토들이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다시해서 동공해서 주소를 다 써서 부치면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전문가 B)”

“결국에는 이제 일터를 개방해주시는 분들이 대가가 없으면 자기 자식 있으니까 해주시는 거거든요. 감사편지하고 이 일을 잘 끝냈다는 모습을 담아서 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잊지 않고 우릴 기억하는구나’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관리를 한단 느낌이 들었을 때 이걸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전문가 C)”

“사후에 이분들하고 관리나 이런 것들도 아까 나온 것처럼 감사편지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여력이 된다면 사실은 한자리에 오시기 힘들겠지만 한두 번 나눠서 교감선생님이 장기적으로 보시고 5~6천 원짜리 식사하면서 감사하다고 성의 표시를 좀 하세요. 큰 접대가 아니고 얼마만큼 고맙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따뜻한 마음에서 서로 교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문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문자보단 전화 한 번 드리세요.(전문가 A)”

또한 학교 차원에서 체험기관을 학교 홈페이지나 지역사회 신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은 지역사회에 위치한 중소 규모의 기관에게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 기관은 체험기관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기업의 경우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작은 동네 사업장들은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해 주세요’하면 어느 사업장이 기부를 했다고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기부를 해달라는 것도 미리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주면 그걸 보고선 사업장 오픈도 해주거든요 ... 예산이 허락한다면 교육기구인증명패 같은 걸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가장 돈 안 들이는 게 리플렛하고 학교 홈페이지이고... 공공기관 같은 곳은 서비스 만족도나 친절도로 먹고 살잖아요. 학부모들의 일이 공공기관의 사업장 개방해주는 공공기관에 일부라도 들어가서 칭찬 남기는 릴레이 운동 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사업장이 일터를 개방해주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한번이라도 ‘이번에 일터 개방해주셔서 고마워서 일부러 왔습니다’라고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개방해주고 싶죠.(전문가 A)”

또한 청소년 체험활동 협력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판 제공, 운영과정 및 결과 평가(학생 만족도, 교육경험 평가)를 통해 우수 체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해주는 방법 등을 도입한다면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여러 기관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되면 각 기업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것 같아요. 정말 국가 차원에서 정착이 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있게 되면 모든 기업이 앞 다투어 진행할 것 같아요 ...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MOU를 통해 공식화해 주셔서 교육적으로 인증된 기관이라는 홍보를 해 주신다거나... 그게 곧 신뢰 있는 기업임을 드러낼 수 있는 측면이 된다면 저희 기업 측에서는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일터체험기관 A)”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인센티브도 분명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합의한 상태에서 세제 혜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번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간 다섯 차례 개방 등 사업장에 한에서 준다거나 해야 된다. ... 연말소득공제나 기업 소득공제 다 해주는데 이게 저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도 없을 것 같고요, 시간으로 해주냐 물질로 해주냐의 차이인거지 요즘 물품도 돈으로 환산해서 인정해주잖아요 시간 기부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김동엽, 교육시민자치회)”

#### 4. 결론

지금까지 자유학기제육의 필요성과 국내외 자유학기제 성공사례,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국,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도와야 한다는 큰 결론을 도출하였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자유학기제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사회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소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변화와 참여는 진로교육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가능하였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학력중심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유학기제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올바르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성공사례가 많이 발굴되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거시적인 것 보다는 작은 일터 개방 조직의 성공사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며, 작은 성공사례 하나 결국은 성공바이러스 역할을 하여 우리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함으로써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펭귄’이라는 말이 있다. 펭귄들은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한참

동안 머뭇거린다고 한다. 그러나 한 녀석이 바다로 뛰어들면 그제야 나머지 펭귄들도 바다로 뛰어든다는 것이다. 펭귄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천적 때문일 것이다. 한 마리가 성공함으로써 그 뒤를 이어 수천마리가 바다로 다이빙하는 장관이 연출된다.

이와 같이 작은 성공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확산시킨다면 제2, 제3의 성공사례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41호) 창의적 체험활동.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년 4월 20일.
- 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 보도자료. 2013년 5월 26일.
- 김기현, 맹영임 (2011).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 협력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선희, 김언주, 박은희, 심재영 (2006). PBL 프로그램이 창의성 및 창의적 문제 해결 향상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5(3), 285-297
- 김종백 (2010). 청소년 체험활동의 교육심리학적 논리와 근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 김현철 (2013). 학교 체험활동의 활성화 및 실천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회 진로교육 포럼, 3-30.
-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0-R08.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2012).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2-49.
- 성은모 (2013). 자유학기제의 주요쟁점과 방향. 2013년 화성시청소년주관기념식 기조강연 자료집, 13-23.
- 성은모 (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의 연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시과제 13-R19.

- 성은모 (201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탐색. 서울시 서대문구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 자료집, 35-64.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1-R02.
- 이지연 (2013).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 진로탐색 중심 접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1회 진로교육 포럼, 19-51.
- 임지연, 김정주, 박봉수, 현영섭, 김신영, 김기현 (2006).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의 연계방안 세미나 자료집. 세미나 자료집 13-S26.
- 한상철, 길은배, 김민, 김진호, 김혜원, 문성호, 박선영, 설인자, 오승근, 윤은중, 이명옥, 이은경, 최순중, 김영지 (2009).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urke, R (1974). *Address to the Regional Meeting of the Dublin Education Council for Secondary Schools, in Synge Street CBS, 2 December 1974.*
- Clerkin, A. (2013). Growth of the 'Transition Year' programme nationally and in schools serving disadvantaged students, 1999-2011, *Irish Educational Studies*, DOI:10.1080/03323315.2013.770663
- Esman, M.J. (1972). *The elements in institution building*. In J.W. Eaton (ed.). *Institution building and development* (pp19-40.), Beverly Hills, CA: Sage Sen
- Government of Ireland (1995). *Charting Our Education Future: White paper on Education*. Dublin: The Stationery Office.
- Jeffers, 2011. The Transition Year programme in Ireland, Embracing and resisting a curriculum innovation. *Curriculum Journal*, 22(1), 61-76.
- Jeffers, G (2007) *Attitudes to Transition Year: A report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Maynooth: Education Department NUIM.

Jeffers, G (2010). The role of school leadership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ition Year Programme in Ireland. *School Leadership & Management*, 30(5), 469-486.



## 발표 3

.....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의 자유학기제 제안 분석

장 근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의 자유학기제 제안 분석

장 근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소개

본원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표개발과 시도별 청소년정책 평가를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협의하여 16개 시도 단위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약 160여명을(시도별 10명 이상)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013년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5차에 걸친 모니터링활동 및 FGI를 실시하여 시도별 청소년정책 추진실태와 정책성과 평가 및 청소년행복마을 지표개발을 위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2월에 최종 활동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각 시도별 모니터링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은 2014년에도 운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본원의 고유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9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2. 자유학기제에 대한 모니터링단원들의 의견

본 모니터링단 활동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모니터링단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발대식 이후 약 3개월간 16개 시도 모니터링단원들로부터 모두 51개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단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자유학기제의 운영시기와 인프라의 문제였다.

### 1) 자유학기제 인프라의 부족

자유학기제를 실시할만한 학교내외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9건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자유학기제 참여 전에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진로교육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우선 확보하거나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구체적인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 그리고 위탁교육 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변학교와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 2) 자유학기제 운영시기

중학교 1학년 시기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건 이었다. 그 대안으로는 전학년으로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 중학교 2학년 이후에 하자는 의견,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전후로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3) 자유학기제에 대한 청소년과의 소통 부족

자유학기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작 청소년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시되었다.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 자유학기제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 그리고 학교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유학기제의 실시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자유학기제 실시와 함께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 4) 자유학기제의 적절한 평가방안 필요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진로교육에 대한 보고서 제출, 자유학기제 참여학생들의 참여 일지 작성, 구체화된 프로그램과 함께 평가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함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전에 입시제도를 먼저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5)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많은 모니터링단원들이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처 학교들끼리의 연계, 청소년활동시설,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들과의 연계, 민간 전문교육기관의 이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이해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앞서의 지적과 연결되지만 자유학기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해서 체험활동 영역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6)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제안

중학교/특성화고를 연계한 진로체험프로그램, 자가프로젝트 성취제, 부모와 함께 보는 자유학기제 사이버 강의, 학교별로 자유학기제 전담 코디네이터 팀 배치 등의 참신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표 1**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의 자유학기제 정책과제 제안**

| No | 지역 | 제안 제목                                                                |
|----|----|----------------------------------------------------------------------|
| 1  | 서울 | 자유학기제 기본교과 편성 시간 축소                                                  |
| 2  | 부산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
| 3  | 부산 | 청소년 진로 담임제                                                           |
| 4  | 부산 | 자유학기제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한 공교육 강화 및 전문 인력 배치                                |
| 5  | 부산 | 자유학기제 시행시기 조정                                                        |
| 6  | 부산 | 자유학기제 홍보 필요                                                          |
| 7  | 부산 | 자유학기제의 시행시기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
| 8  | 부산 | 청소년에 맞는 자유학기제로<br>(1) 전문가 양성<br>(2) 캠페인 활동과 설문조사 실시<br>(3) 지방자치단체 협조 |
| 9  | 부산 | 자유학기제의 시기와 활동<br>(1) 고1 2학기 실시<br>(2) 스스로 찾는 직업활동<br>(3)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
| 10 | 부산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내용<br>오감만족을 통한 수업, 실험활동, 토론활동                             |
| 11 | 부산 | 자유학기제를 1학년이 아닌 2학년때 실시하고, 실시 기간도방학을 활용하여 연장하자                        |
| 12 | 부산 |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 중학교/특성화고 연계 진로체험프로그램                     |

| No | 지역 | 제안 제목                                                                                                                                                                                                                                                                           |
|----|----|---------------------------------------------------------------------------------------------------------------------------------------------------------------------------------------------------------------------------------------------------------------------------------|
| 13 | 부산 | 자유학기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 및 사교육 수요에 대한 제안                                                                                                                                                                                                                                               |
| 14 | 부산 | 자유학기제 인식증강 목표 홍보확대                                                                                                                                                                                                                                                              |
| 15 | 부산 | 자유학기제로 꿈을 찾은 아이에게 꿈을 이룰 길을 닦아주자!!(꿈길)                                                                                                                                                                                                                                           |
| 16 | 대구 | 자유학기제 개선 방안<br>(1) 자유학기제 시행 체계화를 위한 인력확충<br>(2) 진로교사 교육기관 확충<br>(3) 지역사회진로 체험 인프라 구축<br>(4) 자유학기제모니터링단 운영                                                                                                                                                                       |
| 17 | 인천 | 자유학기제<br>(1) 자유학기제 도입 전 입시제도 변경<br>(2) 자유학기제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모습과 효과 홍보<br>(3) 선생님 및 전문 담당자로부터 상담<br>(4) 여러 기관과 연계<br>(5) 입시를 위한 사교육활성화 방지<br>(6) 자유학기제 관련 강의수강 및 계획안 제출<br>(7) 담당 교사를 통해 면담 및 상담 진행<br>(8) 전공별(문과/이과/예체능) 선택사항 고려<br>(9) 자유학기제 시행시기를 학교별 다수결 의견에 따라 시행<br>(10) 홍보 강화 |
| 18 | 광주 | 자유학기제에 대한 제안<br>(1) 자유학기제 이전 적응기간 마련 (창체시간/방학기간/꿈·진로교육)<br>(2) 진로가 비슷한 학생끼리 반 배정<br>(3) 사설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자기부담금(20%)을 통한 교육 수강<br>(4) 위탁교육 활성화<br>(5) 일정 훈련비를 지급하는 인턴제도 도입<br>(6) 주변학교와 교류하여 강사초빙 교육 및 체험활동 진행<br>(7) 일일 자유학기제 활동 보장<br>(8) 1인1운동 실시하여 고등학교 진학 후 알찬 체육시간 운영          |
| 19 | 대전 | 자유학기제<br>(1) 학생들의 의사 반영 - 희망분야 설문조사<br>(2) 세세한 카테고리 분류해 전문성 강화                                                                                                                                                                                                                  |
| 20 | 울산 | 진로교실<br>(1) 각 구역/학교별 진로체험 연계<br>(2) 상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적성 연계<br>(3) 진로체험 시기 연장(3일~7일)<br>(4) 진로교육에 대한 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및 체험시설에 대한 평가                                                                                                                                               |
| 21 | 울산 | 드림 레포트 제안<br>(1) 자신의 좋아하는 것을 기록<br>(2) 흥미와 관련된 진로탐색 및 일기에 기록<br>(3) 친구들과 공유해 구체적인 진로와 연결                                                                                                                                                                                        |
| 22 | 울산 |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는 직업소개축제<br>- 각 시구별 직업소개 체험부스 운영                                                                                                                                                                                                                                     |

| No | 지역 | 제안 제목                                                                                                                                            |
|----|----|--------------------------------------------------------------------------------------------------------------------------------------------------|
| 23 | 울산 | One Month for Realization(OMR)기간 창안<br>- 전문 직업인의 초청강연, 직업관련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참여                                                                        |
| 24 | 울산 | 학생오케스트라를 이용한 협동정신함양하기                                                                                                                            |
| 25 | 울산 | 직업 전문가들의 강의 운영 어떨까요? (가칭-직업 리스닝)<br>(1) 지역별 직업종사자들의 프로그램 강의 후 멘토 역할                                                                              |
| 26 | 경기 | 자유학기제의 수정보완 필요<br>(1) 체험활동 단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필요<br>(2) 평가 방법에 대한 대책 마련<br>(3) 구체화 된 프로그램 개발<br>(4) 자유학기제 이후 일반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간 연계프로그램 개발             |
| 27 | 강원 | 학교별로 자유학기제 전담 코디네이터 팀 배치<br>(1) 자유학기제 전담 인력 구축<br>(2) 전문코디네이터 교육과정 개설과 협의체 생성<br>(3) 학생들의 진로상담                                                   |
| 28 | 충청 | 자유학기제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br>(1)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br>(2) 지역사회와의 연계<br>(3) 대국민적 홍보                                                                     |
| 29 | 충청 | 참여도 점수화 실시                                                                                                                                       |
| 30 | 충청 | 보고서&발표를 통한 자기주도적꿈찾기                                                                                                                              |
| 31 | 충청 | 놀이와 게임을 혼합시킨 체험프로그램의 마련                                                                                                                          |
| 32 | 충청 | 항목별 성취도 평가 실시<br>(1) 선생님 개인 재량에 따른 기준안 폐지<br>(2) 새로운 평가방법 모색 -상 대평가/절대평가 부적합                                                                     |
| 33 | 충청 | 자가 프로젝트 성취제<br>(1) 관심있는 분야 혹은 극복하고 싶은 분야 선택<br>(2) 목표 설정(활동시간, 활동내용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함)<br>(3) 일지 작성(중간점검 : 담임교사, 담당과목 교사와 면담)<br>(4) 목표 달성<br>(5) 포상 |
| 34 | 충청 | 자유학기제 청소년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                                                                                                                            |
| 35 | 충청 | 전국 실행 연도가 2016년도 이를 수 있다! 좀 더 탄탄하고 꼼꼼한 준비, 기반, 인프라 구축 필요!                                                                                        |
| 36 | 충청 |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자유학기제<br>(1) 학교나 정부에서 추진 부모와 함께 보는 사이버 강의 및 숙제프로그램 개발<br>(2)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모교육 어플 개발<br>(3) 자녀를 가진 부모와 교사들의 사이버강의 의무화                   |
| 37 | 충청 |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한 체험 주간                                                                                                                              |

| No | 지역 | 제안 제목                                                                                                                                                                                                                                             |
|----|----|---------------------------------------------------------------------------------------------------------------------------------------------------------------------------------------------------------------------------------------------------|
| 38 | 전북 | 자유학기제<br>(1) 표본조사 대상 변화 - 표본집단을 세분류로 진행<br>: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대상자의 초등학교 고학년, 현 중학생, 청소년(만 16세이상)을 대상<br>(2) 대학생과 연계하여 자유학기제의 진로수업팀 구성                                                                                                                  |
| 39 | 전남 | 자유학기제를 전 학년 대상으로 하자                                                                                                                                                                                                                               |
| 40 | 전남 | 직업체험학교 프로그램<br>(1) 직업 학교프로그램 실시<br>(2) 우리나라 각 시,도에 직업체험시설 확충<br>(3) 온라인 직업상담 프로그램 실시                                                                                                                                                              |
| 41 | 전남 | 일반계 고등학생 대상 검토                                                                                                                                                                                                                                    |
| 42 | 전남 | 보안점) 자유학기제 시기를 동일시한다.<br>(1) 자유학기제 시행 시기 - 학교마다 자율적 시행<br>(2) 주변학교와도 교류 활성화 - 다양한 활동체험 및 대인관계 형성                                                                                                                                                  |
| 43 | 전남 | 자유학기제 기간을 고등학교 1학년 부터로 변경해야                                                                                                                                                                                                                       |
| 44 | 전남 | 꾸준히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br>자유학기제를 중학교 교육과정중 한학기 동안 실시하더라도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찾아서<br>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                                                                                                                                         |
| 45 | 전남 | 학생의 기초적인 성취 수준 확인 방법과 기준들을 학교별이 아닌 국가에서 제시<br>자유학기제의 기본방향 중 하나인 <자유학기에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실시되는 중간·기말시험은<br>실시하지 않고, 학생의 기초적인 성취 수준 확인 방법 및 기준 등은 학교별 마련> 이것은<br>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성적을 중요시하는 학교는 기초적인 성취 수준 또한 높을 수 있으므로<br>어느 정도 국가에서 평균수준을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 46 | 전남 | 확실한 사전교육이 필요함<br>(1) 청소년의 수요 조사 파악<br>(2) 시스템 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진로교육의 선행                                                                                                                                                                                |
| 47 | 전남 | 체계적인 진로 찾기 과정의 필요성                                                                                                                                                                                                                                |
| 48 | 전남 | 자유학기제 시행 중 쪽지시험의 제도화                                                                                                                                                                                                                              |
| 49 | 경북 | 교과교실제 개선 방안<br>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과교실제 개선<br>- 이동수업으로 인해 얻는 능률향상 보다 불편함이 큼                                                                                                                                                                            |
| 50 | 경남 | 자유학기제와 입시의 연동<br>자유학기제의 활동내용을 수행평가 하여 입시에 반영                                                                                                                                                                                                      |
| 51 | 제주 | 자유학기제 활동 이후에도 관련 활동, 교육을 연계<br>(1) 진로시수 증가 (2~3시간)<br>(2) 진로체험의 날의 정기 개최<br>(3) 지역내 학교들과의 교류 확대                                                                                                                                                   |

## 발표 4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제안과제 발표

고 하 림

(호서대학교)



# ‘자유학기제’ 정책제안 연구발표

2013 지역사회 정책 모니터링단  
충청남도 고희림

내가 생각한 자유학기제?

로운 활동을 자유 학기제 내에 할 수 있는 도

# 자가프로젝트 성취제

## ● 제안 배경

현행 교육과정의  
지나친 정형화

노력에 대한  
포상 부족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현행 교육과정의  
지나친 정형화



입시 위주의 교과 과정

: 지나친 경쟁 유발, 사교육 조장

유연성 부족

: 개개인의 여건에 맞게 조절할 수 없음.

- 수동적인 학습태도 형성

취미활동, 자기계발, 극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

노력에 대한  
포상 부족

입학사정관제 도입 스펙쌓기 과열양상  
시간 때우기 식의 활동 난립

→ 생활기록부 입력 불가

청소년들의 활동과 노력에 대한  
기록 및 입시 외의 방법에서 포상 필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  
자존감 및 자부심 향상에 긍정적 기여  
동,은,금장으로서 포상

기관의 상황에 따른 홍보 미흡  
장황한 영역으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



## ● 주요 내용

원칙1. 계획부터 실천까지

청소년 스스로 결정·기획하도록 한다.

원칙2. 계획, 수행과정, 성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기준 외,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원칙3. 줄 세우기 식의 성적을 매기지 않는다.

원칙4. 끝을 맺은 다음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평소 관심 있는 분야(더욱 개발하고 싶은 분야)  
 혹은 극복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고,  
 그 범위를 좁혀나간다.



목표를 설정한다.  
 단,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방법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지도교사를 찾아 목표와 방법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피드백 받는다.



일지양식에 따라

학습 및 체험이 이루어진 날 꾸준히 기록한다.

### 중간점검 및 상시점검

담임교사(혹은 관련과목 교사, 상담교사)와

월 2회 이상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담임교사(혹은 관련과목 교사, 상담교사)에

일지 및 성과물을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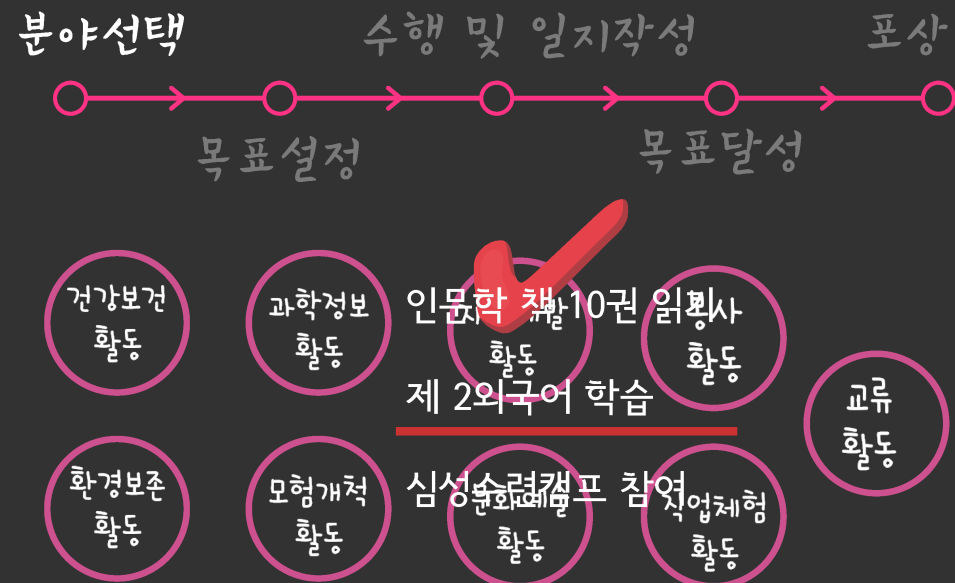
교사는 목표 달성 여부와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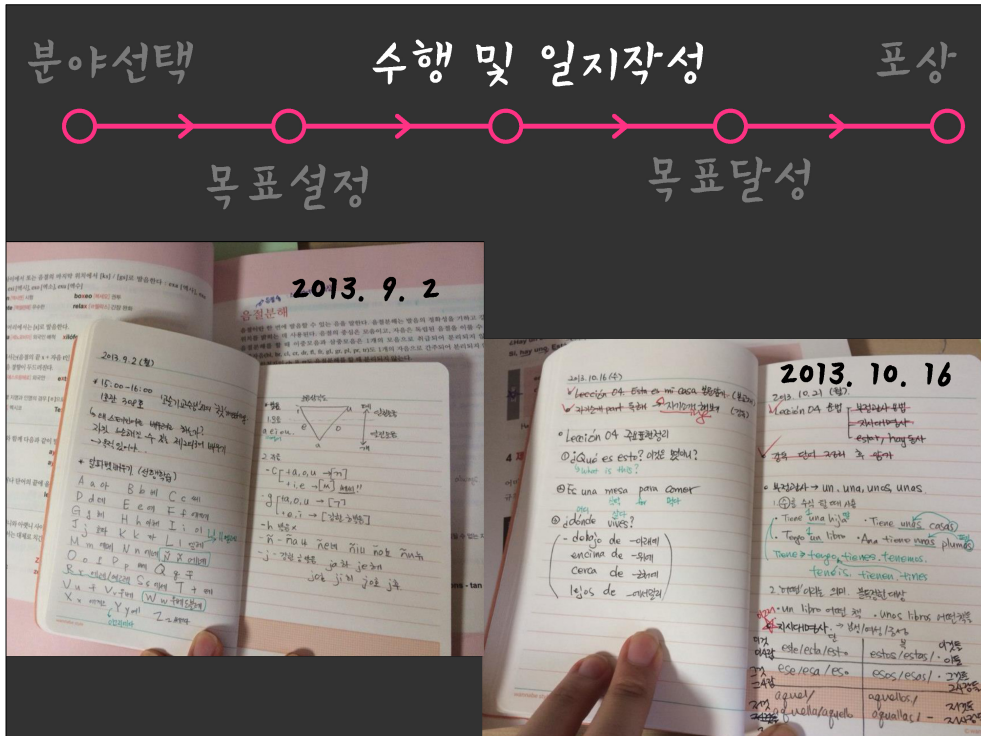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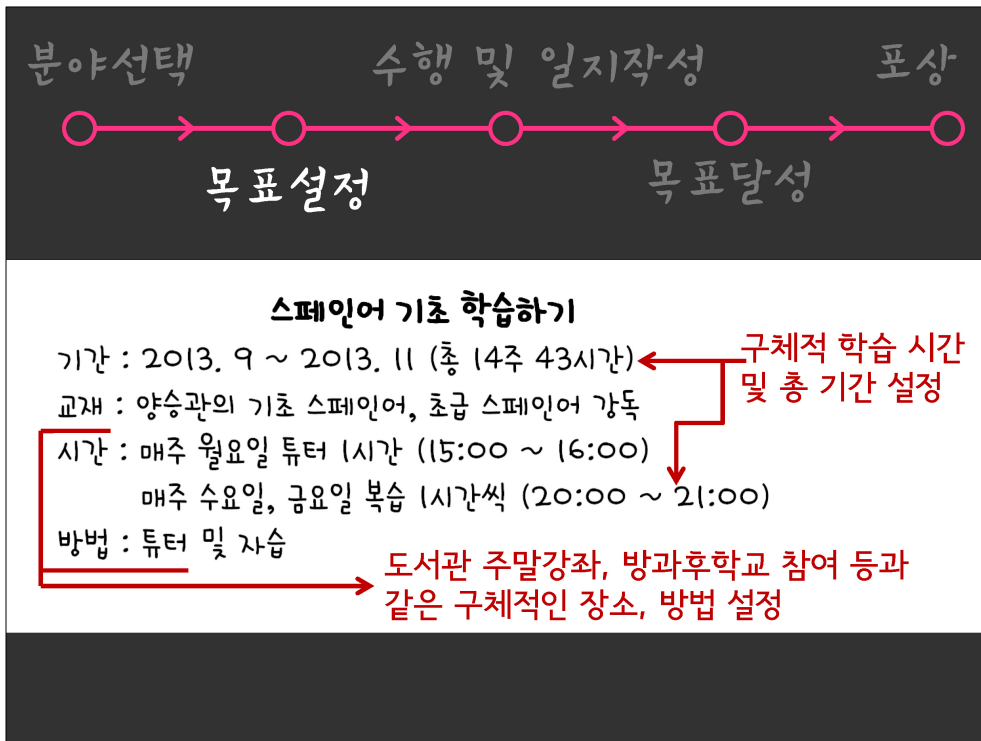
중요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문서양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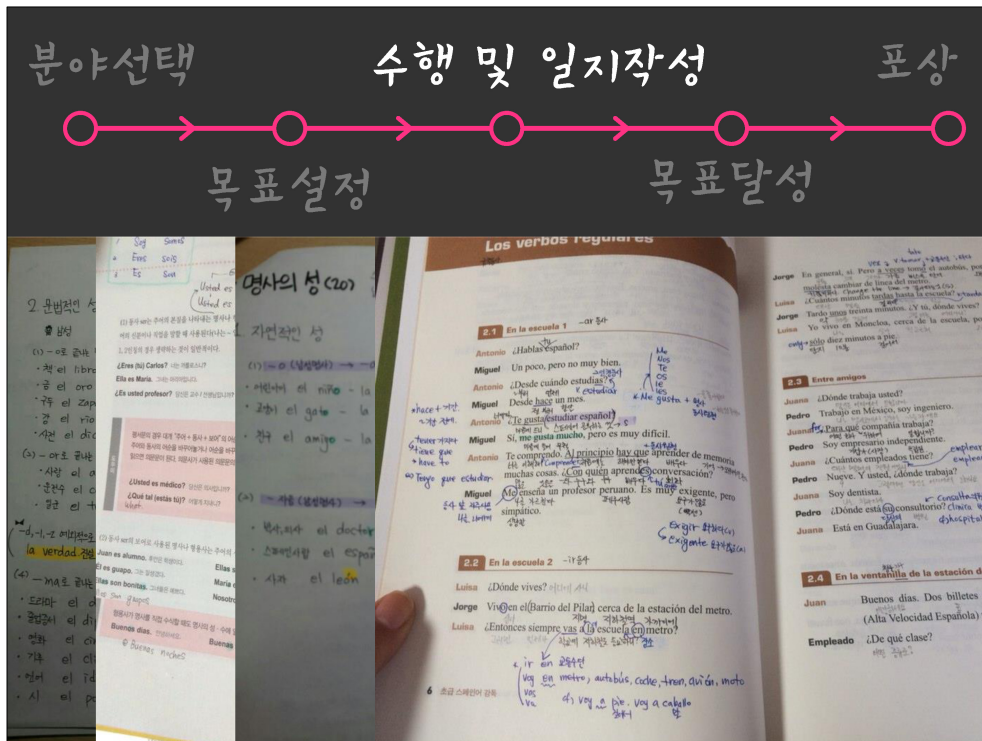


여성가족부(교육부) 인증 문서 발급 후  
 자기계발과목(예시) 2시수를 한 학기 인정한다.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활기록부에 기입한다.



출처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 시스템 <http://yap.youth.go.kr/yap/index.do>





분야선택      수행 및 일지작성      포상

목표설정      목표달성

### 스페인어 기초 학습하기

기간: 2013. 9 ~ 2013. 11 (총 14주 43시간) 50시간 이상

교재: 양승관의 기초 스페인어, 완독 스페인어 강독 10과 중 7과 완독

시간: 매주 월요일 튜터 1시간 (15:00 ~ 16:00)

매주 수요일, 금요일 복습 1시간씩 (20:00 ~ 21:00)

방법: 튜터 및 자습

## ● 기대 효과

### 비 경쟁성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내는 것이  
가장 큰 경쟁임을 배움.

### 자발성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발성 요구.

### 유연성

개개인의 특성, 관심사에 따른 유연한 수행 가능

자유  
학기제

자가프로젝트  
성취제

## ● 기대 효과

### 과정 중시성

결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수행한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 책임성

프로젝트를 끝내야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

### 진로탐험의 기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음.

자유  
학기제

자가프로젝트  
성취제







## Q & A

## Q & A

## Q & A

## Q & A

## Q & A

## Q & A

## Q & A

## Q & A



## Q & A

## Q & A

세미나자료집 13-S51

---

**NYPI 기획세미나**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

인 쇄 2013년 11월 27일

발 행 2013년 11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